

政策討議시리즈 27
1985. 12

養殖水産物の 産地去來制度 改善方案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이 책자는 지난 12월 12일 水産廳과 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後援하고,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主催한 養殖水産物の 產地去來制度 改善 方案에 관한 公聽會에서 발표된 主題論文과 討議內容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이날 公聽會에는 水産廳의 主題論文 發表와, 이어서 參席者의 討論이 있었다. 30餘名の 國會, 行政機關, 學界, 研究機關, 水産團體, 漁民 및 仲買人과 그외에 많은 傍聽客이 參席한 가운데 進行된 이 會議에서 參席者들은 평소의 實務經驗에서 보고 느낀 水産物の 產地去來制度에 관한 여러 가지 問題點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改善方向을 제시하였다.

討議內容이 광범위하고 전반적이었으나, 우리 養殖水産物の 產地去來에 관한 實狀이 명료하게 인식되었으며, 앞으로의 政策方案이 나뉠대로 도출되었다고 보았기에, 當 研究院에서는 이 날의 公聽會 내용을 정리하여 관계 機關의 實務와 研究에 參考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자를 펴낸다.

1985.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빈

면

目 次

머리말

主題發表

養殖水産物の産地去來制度改善方案 高德鳳 1

討議内容 8

附 録

1. 開會辭 49

2. 參席者名單 51

빈 면

養殖水産物の産地去來制度 改善方案

高德鳳 (水産廳 漁政課長)

1. 現 況

가. 沿岸委販場 強制上場制

- 根據：水産資源保護令 第 19 條, 第 21 條
 - － 모든 漁獲物은 指定된 港口에 揚陸하고 指定된 場所에서 賣買 去來
- 實施背景
 - － 資源保護 및 不正漁業 防止를 爲하여 揚陸港口 및 販賣場所 制限
 - － 一時 多量으로 揚陸되는 漁獲物の 集荷 및 迅速한 分散處理로 圓滑한 流通
- 強制上場으로 因한 弊端
 - － 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새로운 流通經路 開發 沮害
 - － 流通의 劃一性 強要에 따른 一部 漁民不滿 誘發

나. 養殖水産物の 任意上場制 轉換時 豫想되는 問題點

- 惡性流通資金 浸透로 漁民被害 憂慮(客主盛行)
 - － 仲買人の 離脫 및 客主化로 水協委販事業 瓦解
 - － 客主의 價格造作으로 適正價 維持 및 公正去來 沮害

- 客主의 前渡金에 對한 高率의 利子負擔
- 水協의 委販機能 衰退로 需給調節 困難
 - 價格支持 및 安定事業 推進 至難
 - 水協의 集荷機能 弱화로 系統出荷 至難
- 委販 減少에 依한 經營壓迫으로 協同組合 機能 弱화
 - 經營壓迫으로 因한 組合員의 經費負擔 不可避
- 養殖水產物爲主 水協의 存廢問題 惹起(14 個)
- 養殖產 任意上場時 流通上 自然產과 區分이 어려워 自然產 濫獲 憂慮

2. 推 進 經 緯

가. 各 界 意 見 綜 合

現 行 制 度 改 善 補 完	任 意 上 揚 制 로 轉 換
學界, 市·道, 地區別(業種別)水協	研 究 機 關, 協 會
○ 零細漁民保護를 爲하여 現行 共同販賣하는 獨占的 去來制度를 許容하고 있으며 他產業과 均衡이 維持될 때까지 現行制度 存置 必要 ○ 現行 委販制度는 零細漁民들이 委販場所까지의 時間, 距離 等의 不平을 招來하고 있으나 諸般 與件上 制度轉換은 時期尙早 ○ 諸般 與件造成과 補完對策을 마련후 示範品目과 地域(道單位)을 選定, 試驗的으로 實施한 結果에 따라 漸次 擴大實施 ○ 制度的 補完措置가 先行되고 諸般與件이 成熟되지 않는 限 制度轉換은 時期尙早이며 全組合 自立時 實施與否 檢討 ○ 養殖爲主 水協의 存廢問題가 擡頭되고, 生産 및 流通統計資料 作成이 不可能하게 되어 計劃生産誘導 등 水產施策上 問題 惹起	○ 市場機能의 活性化와 經濟運用的 民間主導化에 逆行 — 現行 制度下에서는 養殖物은 蒐集商에 依한 出荷比重이 높고 不法漁獲物은 私賣買가 大部分이므로 資源保護가 無關하며 生産者에게 市場選擇의 自由로운 機會賦與가 바람직함. ○ 養殖産은 大部分 漁村契에서 漁場管理하므로 濫獲憂慮는 없을 것이며 漁民을 爲한 施策이라면 組合收益減少는 甘受해야 하고 全國 1日生活圈化 되어있는 現實的 與件下에 制度轉換은 時宜適切 ○ 養殖産은 大部分 生産者가 直接 製品化하고 또는 製造業者에 直接供給하므로 委販節次를 要하지 않으며 契約栽培 誘導를 爲하여 示範的, 段階的으로 實施함이 바람직함. ○ 地域別 水協에서 委販場 施設 提供없이 手數料만 徵收하므로 養殖漁民들의 不滿解消를 爲하여도 制度轉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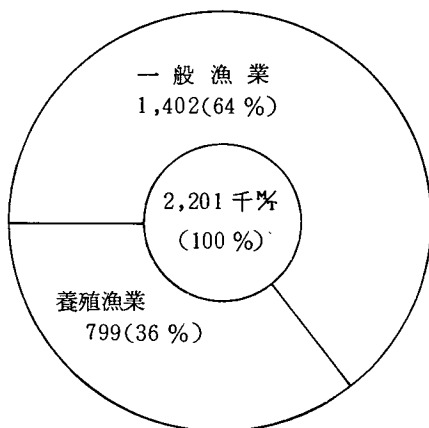
나. 地域懇談會를 통한 漁民輿論

日 時	'85. 9. 3 ~ 9. 7	'85. 9. 16 ~ 9. 19	'85. 10. 9 ~ 10. 12
地 域	木 浦 , 莞 島 , 高 興	釜 山 , 忠 武	瑞 山 , 群 山
參 席 人 員	142 名(漁民 89, 商人 19, 其他 34)	105 名(漁民 54, 商人 18, 其他 33)	115 名(漁民 59, 商人 16, 其他 40)
主 要 討 論 內 容	○ 任意上揚制 主張은 少數漁民의 主張이며 任意上揚制를 實施할 경우 仲買人은 客主化될 것임 ○ 強制上揚制 보다는 系統出荷로 制度에 對한 概念이 再定立되어야 함 ○ 任意上揚制 實施時 惡德商人의 資金浸透로 漁民이 高利債에 허덕임 ○ 養殖漁民 70 % 以上이 低學歷으로 高學歷인 商人과의 競爭不可 ○ 現行制度가 漁民福利 增進을 爲하여 必要하며 漁民의 不滿原因은 一部 私賣買時 水協의 괴당단속에서 오는 것임 ○ 制度와 關係없이 漁民에게 選擇權을 賦與해서 商人과 水協의 競爭體制가 되어야 漁民權益이 保護될	○ 養殖漁業이 發展하고 있는 時點에서 養殖產과 自然產을 法律的으로 差異를 두는 것은 새로운 問題提起 ○ 養殖水產物 全般에 對하여 任意上揚制 實施는 不當함 ○ 客主가 一掃되어가는 마당에 任意上揚制로 轉換할 경우 客主가 再生 ○ 現行制度下에서도 不正漁業은 根絶되지 않고 있으며 任意上揚制 實施時 不正漁業은 더욱 盛行할 것임 ○ 水協과 商人의 善意의 競爭만이 漁民의 受取價를 提高할 수 있다. ○ 任意上揚制를 實施하면 生産統計의 不可能으로 加工物量의 需給調節 不可함. ○ 任意上揚制는 商人에 따라 價格差가 發生하므로 結局 漁民이 損害를 봄	○ 現行制度의 維持가 바람직하며 任意上揚으로 客主가 盛行하면 漁民被害 ○ 現在 水協委販秩序가 確立되어가는 過程에 있으므로 더욱 補完強化 ○ 김의 大量生産時 水協에서 責任지고 委販은 못하면서 漁民들이 팔려고 하면 不正漁獲物로 看做, 斷束만 하는 姿勢는 正되어야 함 ○ 現行制度는 強制上揚制가 아니라 漁民이 自由로이 決定하는 自律上揚制度다. ○ 仲買人 능간이 있으므로 水協이 責任지고 直去來로 漁民保護에 힘쓸 것 ○ 任意上揚制 實施時 初期에는 제값을 받겠으나 水協機能低下로 客主에 依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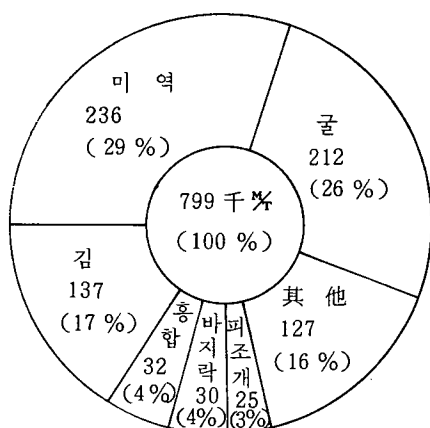
〈參 考 資 料〉

1) 生産 및 委販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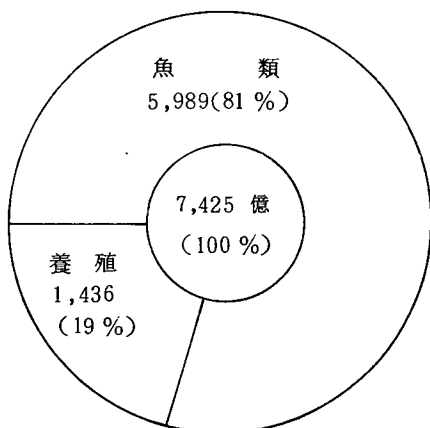
○ '84 沿近海 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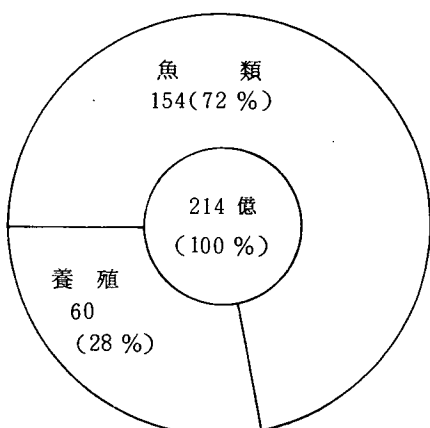
○ 養殖水産物 生産



○ '84 水協系統 委販高



○ 水協委販 收益



2) '84 水協別 養殖水產物 比重

養殖水產物委販率	水協數	水協名
90 % 以上	7	康津, 굴垂下式, 光陽, 海南, 長興, 華城, 寶城, 莞島
80 ~ 90 %	4	珍島, 河東, 第 1, 2 區 잠수기
70 ~ 80 %	-	
60 ~ 70 %	2	新安, 高興
50 ~ 60 %	1	唐津
50 % 未滿	47	
計	61	

○ 海藻類 專門取扱水協(9個水協)

— 水協名: 康津, 海南, 莞島, 珍島, 新安, 高興, 長興, 河東, 唐津

○ 貝類 專門取扱水協(5個水協)

— 水協名: 光陽, 華城, 寶城, 굴垂下式, 第 1, 2 區 잠수기

3) '84 水協別 委販手數料 比重

(養殖 水產物爲主 水協)

(單位：百萬元)

水 協 別	'84 實 績		占 有 率 (%)
	收 入	委販手數料	
計 (14 個 水 協)	8,847	4,866	55
長 興	258	219	85
康 津	95	80	84
굴 垂 下 式	512	421	82
唐 津	68	50	74
第 1, 2 區 잠 수 기	873	848	97
海 南	399	277	69
河 東	140	94	67
寶 城	66	42	64
莞 島	2,161	1,297	60
珍 島	671	372	55
高 興	1,381	629	46
新 安	632	217	34
華 城	1,422	294	21
光 陽	169	26	15

討 議 內 容

座長(金榮鎮: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討議를 시작하겠습니다.여러 議員님들도 參席하신 이 자리에 제가 座長을 보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主題가 漁民과, 그리고 制度和 直接 관계되기 때문에 各階各層을 망라하다 보니 오늘 討議에 參席하신 분이 30名이나 됩니다. 따라서 時間의 제약이 있으니 內容을 요약해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言論에서도 와 계신데, 끝까지 들으시고 報道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討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 분은 瑞山에서 金養殖에 종사하시는 奇先生님 부탁드립니다.

奇白煥(忠南 瑞山 金養殖):養殖水產物은 현재 施策上의 未洽과 行政指導上의 未洽으로 計劃生産이 되지 않고 있으며, 生産의 零細性 및 鮮度維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流通過程을 보면 방치상태에 있다 할 정도인데, 이로 보아 水產資源保護令 第19條 및 第21條로는 團束規定이 좀 未洽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한편 좋은 物件은 私賣買하고, 팔지 못할 物件만 委販場에 나와 魚價維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仲買人의 財力과 資質에도 問題가 있는 바, 仲買人의 購入限度額이 2千萬원인데, 5~6千萬원의 物件을 가져가 未收金이 發生한다 든지, 혹은 漁民들은 온갖 努力을 기울여 委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仲買人이 김이 나쁘다고 핑개치는 行포를 부려 漁民과 먹살을 잡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따른 對策으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資源保護令으로는 좀 未洽하니 團束規定의 法的 強化가 必要하며, 또한 委販施設과 人力의 확충으로 生産物이 全量 出荷될 수 있도록 하며, 對漁民 奉仕體制 確立과 事業의 民主化로 어민의 信賴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實例를 들어 말씀드리면, 安眠島 김被害 漁民들이 現代建設과 무력충돌까지 했는데, 水協이나 水産廳이 漁民을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하루 속히 解決해 줘야 할 것입니다. 또 水協은 經營構造 改善으로 手數料 의존에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其他 建議事項을 말씀드리면, 水協中央會는 地區別 水協과 수시 인사고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中央會에서도 地區別 水協에 대한 隘路를 알아야 하고, 地區別 水協에서도 中央會의 일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水協職員의 공개채용시에 학력위주의 폐단을 止揚하고, 水産專門分野 卒業者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여 水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요망하며, 魚價維持를 위해서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海苔乾燥機 所有者에 대해 당국에서는 加工業者라고 해서 免稅油혜택을 안주고 있는데, 저희 養殖漁民 입장에서는 漁場에 시설하고 채취해서 乾燥・委販까지를 生産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免稅油혜택을 주시도록 건의합니다. 그리고 無免許養殖의 철저한 索出로 養殖漁業 질서를 確立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도 無免許業者들이 과반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에 대해 政府當局이나 水協에서 備蓄事業 및 소비확대를 위한 食品多樣化와, 可能하면 海外市場 개척에도 努力해 주실 것을 建議합니다. 養殖漁場의 效率的 管理를 위해 免許權은 水協에서 관장하고 管理는 漁村契에서 하도록 改善해 주실 것도 요망합니다.

金永來(全南 高興 김養殖) : 高興 연안에서 在來式으로 다소 영세하게 김生産을 하고 있는 어민의 한사람입니다. 저도 生産한 김을 水協아닌 商人에게 販賣해본 經驗이 있습니다. 차거운 바닷가에서 새벽잠을 자지 않고, 김을 生産했던 저희들은 束當 단돈 10원씩이라도 더 받겠다고 개인상회

가 있는 곳까지 가서 김을 팔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면 水協과 선의의 競爭을 하게 하여 우리 어민에게 다소의 利益이 오지 않을까 하논 기대감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 漁民들의 당초 기대했던 制度와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었읍니다 自由上場이라 하여 個人商人에 物件을 팔 경우, 이들 商人들은 처음에는 漁民들이 유혹되기 알맞은 價格을 제시합니다. 즉 많은 물량 중 단 한 박스라도 일단은 높은 가격으로 올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량으로 物件이 나오게 되면 그 마진에 해당하는 만큼 價格이 下落하게 됩니다. 그러나 漁民은 처음의 높은 價格을 생각하여 商人에게는 1,500원씩을 받았는데, 水協에서는 1,200 원밖에 못받았다 하는 輿論이 돌아, 다수의 漁民들에게 任意上場制를 유혹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어민이 살아야 하고, 또 水協도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마는 현행 制度上의 問題에 대해 다소의 補完만 뒤따른다면 이것이 漁民들에게 큰 利益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 高興水協 委販秩序는 어느정도 定着段階에 놓여 있습니다만, 단 한가지 漁民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委販時間이 현재 9時부터인 것을 앞당겨 漁民들이 아침 일찍이라도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販賣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協 仲買人들은 과거에 商會를 했던 客主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水協에서 系統出荷事業을 하나까 할 수 없이 상회를 하지 못하고 들어와 있는 것이지, 만일에 任意上場制가 실시되면 그분들은 모두 個人商會를 開設해 나가버려 水協은 살아갈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가격농간에 의한 피해는 결국 어민들이 볼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金鉉富(慶南 忠武市 굴養殖) : 制度의 改善이란 것은 반드시 現實에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이 原則이고 常識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의 主題發表 內容을 살펴 볼 때, 역시 學校, 行政機關, 水協, 漁民들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現行制度를 지지하고 있으며, 任意上場制를 주장하는 쪽은 실질적으로 우리 漁民과 直接 關聯이 없는 순수 理想만을 주장하는

研究機關,協會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살 먹은 아이에게 7살 먹을때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아마 우리의 현실은 이것을 받아 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制度改善은 信用社會가 뿌리를 내릴 때에나 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制度는 그 利益의 일부를 환원시켜서 生産漁民들에게 되돌려 주는 그런 보람도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畵水協은 漁民 스스로가 月別價格을 결정해서, 이 價格에 따라 養殖物을 출하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組合運營을 現行制度下에서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曹極鉉(珍島郡 水協組合長): 任意上場에 대한 問題가 논의된 것은 3~4年前부터 입니다만, 이런 회의에 參席한 것은 처음입니다. 理論的인 면에서 보면 生産者에게 兩者擇一의 권리를 주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兩者가 있을 수 있느냐가 問題입니다. 組合의 販賣事業은 仲買人이 구성되어야만 이루어 지는데, 任意上場制가 되면 이 仲買人이 없어져 擇一할 수 있는 機會를 줄 수 없다는 점에서 제도전환에 反對하는 것입니다. 組合은 組合을 위한 組合이 아닙니다. 組合은 手數料 받아서 收支改善을 하기 위해서 現行制度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組合은 委販手數料 외에 여러 방법에 의해 수입원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任意上場制는 仲買人을 없애 버리게 되어 어민은 商人들에게만 김을 팔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今年에는 前例없이 많은 量의 김이 生産될 것입니다. 이런 狀況에서 商人들은 마음대로 價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競落이 아니므로 競爭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漁民의 權益을 보호케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다소 問題點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은 자체적으로 改善해 나가면서, 組合에서 仲買人을 구성해서 販賣하는 현재의 制度는 절대 존속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仲買人도 利益을 추구하는 장사꾼으로, 組合仲買人으로 利益이 되지않으면 나가서 다시 商會를 열 것이므로, 그래서 漁民은 擇一할 權利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制度改善을 반대 합니다.

丁詰煥(全南 木浦市 仲買人): 任意上場制가 되면, 저 자신 仲買人으로 장사하지 않고, 組合에서 나가 가게를 열어 장사할 것입니다. 仲買人으로 있는 限, 구색을 맞추어 物件을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現行 制度下에서 仲買人으로 남아 있는 理由는, 우선 水協에서 物件을 구입할 때는 手數料가 없읍니다만, 市中 客主로부터 구매할 때는 3%의 手數料를 지불하여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한편, 저희 仲買人들이 水協에서 物件을 구입할 때, 담보는 제공해 놓았읍니다만, 去來代金에 대해 10日間 無利子 혜택을 받읍니다. 그러나 일반 客主로부터 우리가 物件을 구입하면, 現金으로 지불해야 하고, 現金이 없을 때는 高率의 利子を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消費者에게도 부담이 돌아가리라고 생각됩니다.

水協은 仲買人에게 流通情報를 제공해 주고 있고, 仲買人 구호책으로 仲買人 助成金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水協은 品質高級化를 위해 製品指導와 檢査制度도 실시하고 있는데, 任意上場制로 될 경우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하면서 느낀 바로는 製品의 質이 10年前으로 되돌아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尹 憲(全南 莞島郡 미역養殖): 저는 지난 9月 水産廳에서 主管했던 地方公廳會에 參席했던 사람으로 오늘 배부된 主題發表 資料를 보니, 저희 漁民들의 입장이 잘 收斂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莞島郡 金日邑 용촌漁村契 95戶를 대상으로 해서 世帶主의 年齡別, 學歷別 구성비를 조사해 보았읍니다. 年齡別로 보면 39歲以下가 30%이고 40歲以上이 70%이며, 學歷別로 보면 無學에서 國卒까지가 92%이고 中・高卒이 8%이며 大卒은 한사람도 없었읍니다. 이 사람들이 養殖業을 經營하여 얻는 年間 粗收益은 200 萬원 内外입니다. 이들 零細 養殖業者가 任意上場制로 됐을 때 과연 消費地까지 수송해 가서 販賣가 가능하겠는가를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任意上場制가 시행되면 우리 漁民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를 實例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漁村에서는 乾문어를 소량 생산하고 있는데, 管内 莞島水協에서는 乾문어의

委販이 형성되지 않아 이 物件을 麗水로 出荷하고 있습니다. 麗水에는 商會가 많은데, 이 商會에서는 物件을 팔아주고 6%의 手數料를 받습니다. 그러나 麗水委販場에서는 4%의 手數料를 받습니다. 漁民들은 營漁資金으로 몇 百萬元씩 商會로부터 받아 쓰는데 乾문어를 出荷하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月 4%란 利子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처럼 漁民들은 生産한 物件에 대한 보호를 전혀 못받고 있는 實情입니다.

만약 任意上場制가 시행 된다고 했을때, 年間 200 萬원 안팎의 生産에 그치는 이 漁民들이 과연 消費地까지 物件을 가지고 나가 잘 팔아서 충분한 所得을 올릴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漁村은 반드시 水協이 주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60 ~ 70 年代를 보면 營漁資金을 5 부내지 심하면 7 부라는 高利에 의존했습니다. 陸地生産하고 달라서 漁村에서는 施設資金과 營漁資金이 막대하게 必要합니다. 施設物은 1 年정도 쓰면 상당수 改替해야 하므로 固定資產으로의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水協이 존재 위기에 놓여 다시 高利의 私債에 의존하게 된다면, 우리 漁村經濟는 그야말로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南基玉(全南 高興郡 水協組合長): 우리 漁場에서 우리 漁民이 生産한 物件을 漁民의 組織인 水協에서 共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施行過程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은 施設을 보완하고 制度를 改善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任意上場制를 해서 客主를 許容하고 水協과 경쟁하게 한다는 얘기이지만 이 경우 水協共販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지금 저희 組合의 仲買人들이 지난날에 전부 客主였는데 任意上場制로 된다면 이들은 모두 客主로 환원해서 仲買人이 없어지고 따라서 漁民들은 이들 客主가 任意로 정한 價格으로 物件을 팔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할 때 產地共販機能은 水協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漁民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水協에서도 제대로 機能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辛錫衡(全北 扶安郡 김·貝類養殖) : 이런 자리에는 제가 처음 나왔습니다. 김養殖을 볼 때 과거에는 自然產을 위주로 한 재래식 김을 했기 때문에 企業化가 되지 못했으나 지금은 製造乾燥機를 도입하고 大量生産에 임하고 있습니다. 水協이 漁民의 保護機關이라고 자칭하고 있으나 사실은 弱勢인 仲買人으로 하여금 仲買를 실시하게 하여 產地와 大都市의 價格차이는 束當 500원 내지 1,000 원까지 납니다. 그러므로 企業化되어 있는 養殖漁民들은 保護傘이란 法規에 의해 꼭 委販을 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水協이 漁民을 위해 수매를 해서 비축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大都市에 났을 때의 利益을 감안하고 仲買에 임하는 仲買人에게 全量을 넘겨 주는 實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組合長님께서서는 任意上場制가 되면 仲買人이 없어진다 水協機能이 약화된다고 말씀하시지만 農業分野에서는 自由化되어 農產物을 自由로 販賣할 수 있음에도 農民들은 자진하여 單位農協의 系統出荷에도 응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現在 漁民의 지식수준이 낮다고 하나 어느 漁村이든 TV나 라디오를 갖고 또한 1日生活圈으로 얼마든지 情報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百年大計의 水產政策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自由經濟 體制로 돌입해서 資本主로 하여금 水產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開發에 參與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水協이 그렇다고 어려운 곤경에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水協은 이에 대응하여 制度改善이나 施設改善을 통해 명실공히 漁民을 위함으로써 漁民과 밀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時期的으로나 與件上 水協에 문제점이 있다면 일부 品目이나 地域을 선정하여 試驗段階를 거쳐 선택방법을 가리는 것도 漁民은 기다려 줄 것입니다.

尹 憲(全南 莞島郡 미역養殖) : 養殖水產物 開發이 無限하다고 보는 견해가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無限한 養殖水產物 開發이라 하여 大型資本家들이 뛰어들어 過剩生産을 초래했을 경우 祖上 代代로 물려받으며 적은 量의 養殖으로 生計를 유지해야 하는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問題입니다.

辛錫衡(全北 扶安郡 김·貝類養殖) : 國家的 次元에서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尹 憲(全南 莞島郡 미역養殖) : 제말씀은 그것은 理想이지 現實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韓基洙(京畿 華城郡 굴養殖) : 저는 農事도 약 7,000 坪 짓지만, 굴 養殖을 하면서 今年에는 김 養殖도 약 300 棚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水協에 共同出荷를 약 3,000 束, 中部市場에는 약 2,000 束의 김을 水協을 통해 販賣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養殖을 300 棚 했다면 어느정도 企業養殖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제가 水協 去來計算書와 中部市場 去來計算書を 대조해 보기 위해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水協委販物이 약 25% 더 高價로 받았으며, 中部市場 去來分의 일부는 아직 잔금 정산처리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漁家所得을 日當으로 보면 불과 萬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萬원도 안되는 物件을 매일 生産해서 어떤 方法으로 팔아 먹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商會에 出荷해서 價格을 덜 받았다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없고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이란 그 會社와 去來를 끊고 다른 商會를 찾아가는 길 뿐인데 제 경우 다른 商會를 가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 같은 저의 實例를 보아 저는 任意上場制를 주장하는 분들 참 가소롭다고 생각해요.

저도 企業漁民이라면 企業漁民이고 쌀만 해도 수백 가마 生産하니까 農民이기도 한데, 평소부터 생각하기를 農産物에 대한 流通보다는 水産物 流通制度가 약 20 年 앞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水産物의 특수성인 鮮度維持를 제대로 못하면 腐敗한다는 問題, 또한 平均 漁民의 1日 生産量を 감안할 때, 任意上場制로 된다면 零細漁民 各者가 서울까지 가서 팔 수는 없고 자연히 주변에서 약게 노는 사람이 나와 서울 市勢라며 低價의

計算書를 보이고 그 價格에 物件을 수집해서 高價로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처럼 몇 사람의 利益만을 돕게 하기 위해 法令의 개정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農漁村의 實情을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냐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제 말에 대한 근거자료로 여기 제가 水協 中部市場, 가락동市場에 販賣한 計算書를 제시하겠습니다. 이같은 資料들을 근거로 檢討해서 法 개정의 가부를 거론해야지 무조건 自由經濟體制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論旨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朴裁炯(全南 珍島郡 김養殖) : 저는 김을 20年間 養殖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 갑니다. 금년 豐作이 들어 김 값이 生産原價 미만으로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生産者는 生産에만 전념하고, 流通은 流通專門機關에서 취급하여 生産者와 消費者를 동시에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產地인 莞島나 珍島에서는 한束에 平均 2,000원 정도 합니다만 서울 小賣市場에서 사서 먹으려면 4~5천원으로 둔갑합니다. 이것은 流通專門機關이 未洽한 탓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그 결과 生産者와 消費者 모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70年代까지는 在來式 養殖業을 하다가 81年頃부터 養殖業도 발달하여 生産도 늘었고, 건조기계도 들어와 大量 機械化 年産이 되었는데, 이때 중소도시에 있는 客主들이 漁村에 침투하여 販賣手數料 5%를 갖고 水協과 서로 뺏으려고 다투면서 任意上場制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 실치는 않으나 김手數料 5%라면 全國적으로 2百億원은 될 것입니다. 이 2百億원을 가지고 漁民을 중간에 딱 놔두고 水協과 客主가 戰爭을 함으로써 漁民들은 중간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의 問題는 우리 漁民에게 水協과 客主 중 兩者擇一하라는 말 같은데 사실 水協은 우리 漁民의 것입니다. 漁民이 出資를 해서 水協을 만들었습니다. 水協의 販賣機能이 마비되면 信用貸出, 購買, 指導事業 이런것이 전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任意上場制에 반대를 합니다.

김은 多變性的의 海藻類이므로 우리는 김을 도깨비풀이라고도 하는데, 이

것은 금방 좋았다가 금방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이 2~3年凶年 들었다가 今年에 잘된 것은 서너차례 태풍이 불어 바다를 뒤집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김의 免許柵數가 76萬柵이고, 여기에 無免許가 약 30% 되어 全體 김柵數는 百萬柵을 넘습니다. 김生産은 柵當 90~100束을 보므로 平年作으로만 보아도 今年 김生産은 1億束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國民 1人當 2.5束의 꼴로 이제는 消費가 問題입니다. 김은 70%가 水協에 委販되고 나머지 30%는 中小都市 商會를 통해서 大都市로 搬出된다고 보아지는데 價格은 大同小異합니다. 政府에서 많은 量의 備蓄 김을 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任意上揚制가 되어 水協의 機能이 마비되면 漁民은 고아 처럼 자신을 보호해 줄 團體를 잃게 됩니다. 團體가 없어지면 많은 혼란이 오고 한번 혼란이 오면 病치료에 10年以上이 걸릴 것입니다. 任意上揚制는 될 수 있으면 止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峻相(新民黨 國會議員): 제 出身地域은 高興, 寶城 地域입니다. 議政生活 5年 동안을 하면서 지난 81, 82年에 김의 上揚制에 대한 建議를 산발적 또는 집중적으로 듣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가 지난번 國會 農水產委員會에서 이 問題를 제기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公聽會까지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前의 發表者 가운데 上揚制 논란은 漁民을 중간에 놓고 하는 戰爭놀이라고 했음니다만, 다른 發表者들은 任意上揚制가 理想만을 추구하는 것이며 漁民의 權益을 침해할 것이고 客主의 高利債 역할만 부여할 것이므로 販賣機能은 水協에만 집중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公聽會를 주관한 農村經濟研究院이 系統出荷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 자리에 초청하였다고 생각하여 매우 곤혹스러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계신 水協組合長 중에도 組合長이 되기 前, 실제 海苔를 생산해서 水協에 委販을 앓고 他地域에 가서 販賣한 經驗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의 當時의 생각은 아마 零細漁民의 입장에서 단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는데 目的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郡의 동정을 제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高興에서는 現在 社會各界 지도층 인사가 참여하는 1萬名の 任意上場制 反對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管轄 水協組合長은 도장을 찍는 漁民들이 自由에 의하지 않고 強制的으로 서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의 견해와 이에 따른 對策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現在 高興郡 水協에서는 全國 產地, 消費地 市場價格을 파악한 연후인 오전 9時가 돼서야 委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委販 시작시간을 좀더 단축시켜달라는 漁民의 要望이 있었읍니다만, 이 같은 무리를 빚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여기 오신 高興郡 漁民께서는 任意上場 반대意見을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면에서 나온 진정서를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서에 따르면, 그 地域漁民의 80 %가 光州를 중심으로 自由販賣를 하고 있다는데 그 地域輿論을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強制上場制의 問題에 대해 저의 持論을 말씀드리면 「獨占은 모두가 惡이지만, 그 가운데서 協同組合에 의한 獨占이 最惡」이란 한 印度教授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協同組合을 社會나 法律이 保護・支持하는 이유는 이 特典을 이용하여 獨占을 피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去來와 공정한 價格으로 資本主義經濟의 獨占을 배제토록 하는데 그 근본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協同組合의 販賣事業은 金錢的 利益보다는 道德的 利益, 個人的 利益보다는 社會의 利益을 도모하는 原則 위에서 청렴과 성실을 지키는데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國會에서 질문한데 대하여, 水產廳長은 물海苔와 물미역, 이런 것은 水產資源物이지만, 海苔는 加工이 된 다음 嗜好食品으로 팔리므로 水產資源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의 경우는 일정장소에 양육하여 販賣토록 하는 水產資源保護令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政府는 法の 잘못 적용으로 漁民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憲政記錄에 남았습니다. 卽 水產資源保護令 第19條와 第21條에 의한 海苔에 대한 強制上場 適用은 水協의 횡포입니다.

政府當局은 市場機能을 活性化하고, 적극적인 開放政策으로 民間主導의 經濟成長을 강력히 推進한다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우선 養殖水産物의 販賣方法을 現在의 強制上場制에서 任意上場制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안되면 적어도 제반 여건조성과 보완대책을 마련한 後 시범品目과 地域을 선정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실시한다는 선까지는 최소한 양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強制上場制에 問題가 있다는 점을 저는 4 가지로 要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強制上場制에 의해 流通에 晙證현 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內陸地 都賣市場과의 중복 상장에 따라 都賣價格이 2 층으로 형성되고, 流通의 多段階와 高마진 초래는 물론, 流通時間의 지연에 따른 商品性의 下落 또한 流通의 劃一性 강요에 따른 非理가 發生되고 있습니다. 둘째, 手數料의 강제징수 편법으로 이용되어 水産資源保護와 무관한 養殖水産物을 강제로 上場시킴으로써 漁民의 불만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셋째, 交通과 情報의 經濟環境 變化에 따른 새로운 流通經路 開發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生産漁民의 消費地 직출하와 大量需要處와의 계약생산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습니다. 넷째, 適用法律이 상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農安法의 自由販賣와 水産資源保護令의 產地委販場 系統出荷는 서로 상충됩니다.

이 외에도 產地 仲買人에게 問題가 있는데, 仲買人이 대체로 零細한 關係로 담보액이 적어서 物量을 즉시 全量 수매할 수 없다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仲買人에 한하겠으나, 仲買人의 농간으로 公開入札 方法을 외면하고 價格維持가 아니라 價格을 조작하여 生産漁民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 하는 우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組合에서는 金生産期에 水産物團東班을 편성하여 全體 漁村마을을 수색함으로써 漁民들은 위화감에 빠져 있으면서도 團東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水協은 團東 根據을 內需用檢査法이라고 말할 것인데 그렇다면 檢査를 畢한 때에는 어디에 販賣해도 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도 밝혀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漁村契 單位로 委託先行 檢

査制度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市中에 檢査를 받지 않은 海苔가 販賣되고 있는데, 이를 不正食品이라고 言論에 비친 이유가 무엇인지 水産廳과 水協관계자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香順(全南 海南郡 仲買人): 저희 仲買人들이 과거 產地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物件을 살 때는 教育費는 물론 都市에 집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 水協 仲買人이 되면서 있는 재산마저 팔아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水協에서 委託한 物件을 매입해서 都市에 팔면 재 값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담보물건마저 몇천만원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現在 仲買人의 實情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任意上場制가 된다면 仲買人은 모두 빠져나갈 것인데, 사실상 이 仲買人制度가 아니면 生産者는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劉忠烈(釜山 水大 教授):釜山水大에서 저는 水產物 流通에 관한 강의를 맡고 있는데, 韓國水産業에 있어서 세계적 규모의 特殊性이 있다면 바로 上場制의 問題라고 저는 學生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問題는 美國, 日本 등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韓國에서의 이같은 問題는 資源保護令에 關係됩니다. 資源保護令의 연혁은 日帝初期의 資源取締令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組合이란 獨占體制 구축의 가장 큰 계기는 2次大戰이었습니다. 즉 비상단계인 戰時體制에 돌입하면서 日帝는 統治權만으로는 안되어 生産者의 組織體 속에 委託販賣라는 獨占體制를 收斂하였으며, 이것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면에서 水產物 流通은 農產物보다 한발 앞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락동에 수백억원을 들여 市場을 지어 놓았읍니다만 그 機能이 정상화 되려면 韓國社會에 있어서나 先進國에 있어서나 마찬가지로 한손에 코란을 들고 한손에 칼을 들어야 합니다. 즉 類似業 단속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가락동시장 機能이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現行 憲法 120條1項은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個人의 經濟上的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憲法 124條3項에는 「國家는 農民, 漁民과 中

小企業의 자조조직을 育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20條 1項은 個人의 自由를 尊重해야 한다는 條項이고, 124條 3項은 協同組合을 育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0條 1項이 尊重되어야 할 것이나, 아니면 124條 3項의 自助組織을 國家가 좀더 育成해야 하나, 이런 側面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오늘 公聽會의 目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職業이 있습니다만, 委託販賣業과 가장 비슷한 職種을 하나 예로들면, 술집 마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집 마담이란게 서비스에 따라 월급이 千差萬別입니다.

지금 組合이 委託販賣을 獨占的으로 한다는 것은, 漁民의 입장에서는 술집을 選擇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갖고 술집을 가는데, 한 집만 가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을 流通에서는 Push Marketing이라고 합니다. 한집에만 가라고 강요당할 때, 한두번은 괜찮지만 매일 그렇다면 짜증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와같은 獨占제도를 許容함으로써, 水協은 Pulling Function의 힘이 크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生産者 組織體가 生産物 收集의 側面이 약하다는 것은 反省할 必要가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努力을 해야합니다. 產地流通을 위해 水協에 獨占權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農漁民이 못사니까 어느 段階까지 自助的 組織을 도울 必要가 있기 때문에 獨占權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理解하고 있습니다.

現在 김에 대해서는 全量 檢査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제가 먹는 김에서는 檢査한 것을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지금도 잘 안되는데 마음대로 팔라고 할 때 檢査制度는 더 엉망이 될 것입니다. 要約해서 보아 組合은 서비스 잘하는 이쁜 마담되고, 檢査는 徹底히 해서 生産者・消費者가 믿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經濟의 基本體制를 自由開放이라는데, 農水産物, 김만 自由化하고 다른 것은 自由流通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일관성의 관점에서 問題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서울의 教保센타 책점이 각 地方都市에 엄청난 規模의 책점을 낼 準備를 마쳤으나, 地方 영세서적상들의 반대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海苔에 대해 自由去來를 주장하는 분이 라면, 教保도 자기 돈으

로 자유스럽게 책장사 하려는데 대해 肯定的이어야 思想의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社會라는 것이 自由에 의해서만 모든 問題가 解決되는 것이 아니고, 平等에 의해 서로 均衡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 이 두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성숙된 社會가 이루어 집니다.

海苔의 問題에 있어서 하나 하나씩 解決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일시에 制度를 번복하고자 하는 것은 養植業 또는 水産業을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現在 養植物로는 김, 미역 뿐만아니라 內水面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편 水産物의 去來에서는 養殖産, 沿近海産 외에 遠洋産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래서 水産廳의 法規도 水産物 種類, 去來方法에 따라 여러개로 흩어져 있는데, 차제에 이런 것을 통일적으로 규제하여 멧있는 秩序를 만들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水産資源保護令은 본래의 目的인 水産資源에만 국한시키고 水産物 流通은 養殖水産物에 沿近海, 遠洋産을 망라한 全水産物의 揚陸, 去來에 대한 法令을 만들어 秩序있는 流通을 實現시키는 것이 漁民을 위하고, 우리 水産界의 發展을 위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曹極鉉(全南 珍島郡 水協組合長): 저희 珍島組合에서는 새벽 4時半이면 트럭 2대가 產地別로 巡廻하면서 無料로 漁民들로부터 海苔를 收集해서 委販場에 運搬해 주고, 飼料라든가 其他 들기힘든 生必品을 運搬해 주기도 합니다. 김委販에 대해서는 漁民이 直接오지 않더라도 組合에서 多數仲買人을 통한 競賣를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精算書를 漁民에게 보내드립니다. 이같은 制度를 바꾸어 漁民의 權益을 競爭도 없는 일개 商人에게 맡긴다는 것은 問題가 있습니다. 商人은 각 동네마다 말 잘하는 收集責을 심어 놓았는데, 이들은 束當 100 원정도의 코미손을 먹기 위해 매일 돌아다니며 술까지 사취하면서 漁民을 부추켜 김을 빼갑니다. 이들은 漁村을 교란시키고 漁民들을 수탈하는데, 이에 대항하는 漁民 自助團體가 水協입니다. 水協을 또다른 수탈기구로 보는 것은 저희 協同組合에 대해 깊이 理解를 못하신 것으로 보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上場制 問題는 보다 면밀

하게 檢討해 주시고, 水協을 좀더 肯定的으로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柳峻相(新民黨 國會議員) : 問題는 지금 珍島組合長께서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漁村에서 漁民의 불만과 원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組合長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휘하의 職員이 執行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組合長은 漁民의 불만이 터져나온 원인을 규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公聽會도 그러한 輿論을 취합하는데 目的이 있습니다.

韓奎泳(群山水專 教授) : 저는 지난번의 地域公聽會에 참석한바 있습니다. 제 意見은 多數養殖漁民의 영세성으로 보아 現在 實施되고 있는 소위 強制上場制度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強制上場이란 용어는 語感이 좋지 않으므로 系統出荷로 고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自由經濟體制라고는 합니다만 混合經濟體制가 現實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아 現體制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制度的 보완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法條文의 시행에 있어 水協은 養殖業者에게 너무 경직스럽게 대함으로써 問題가 야기된 것으로 보아 法適用에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基本制度的 보완은 養殖業을 資本制的 企業經營으로 유도하면서 단계가 성숙됨에 따라 한가지씩 自由體制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玉景杓(굴垂下式 養殖水協 組合長) : 特殊組合인 우리 굴垂下式組合을 淸주로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굴은 生産量의 70 %가 輸出用이고, 나머지 30 %가 內需用으로 販賣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需給調節을 위한 系統出荷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굴養殖場 所有主는 個人으로 되어 있으므로 任意上場制로의 전환시 不法漁撈의 성행이 우려되며, 販賣處의 多邊化로 政策上 必要한 流通統計資料의 收集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稅金포탈의 위험성이 크고, 價格調節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 때 任意上場制는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高楠表(麗水水專 教授):저는 사실은 流通問題보다는 김 養殖을 전 공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몇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저는 일찍부터 強制上場制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水產資源保護令에 의해서 養殖水產物이 水協에 委託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믿어 왔고, 水協에 나가 敎育을 할 때마다 이같은 주장을 해온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즉 다른 養殖도 마찬가지겠읍니다만, 특히 김은 넓은 같은場所에서 여러 사람이 養殖하고 있기 때문에 生産秩序가 어느 한 個人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漁場 全體를 共同으로 管理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協同組合體가 生産管理와 販賣管理를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生産管理에 水協이 제 機能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漁民의 불평도 나오고 強制上場制란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해 봤읍니다.

몇 가지 例를들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 養殖에 있어 密殖이나 난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확을 많이 올리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한 漁場內에서는 可能生産力이 있기 때문에 密殖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자기가 뺏아먹는 것이 됩니다. 즉 相對方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않고 자기만 수확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技術向上은 있습니다만, 같은 技術을 가지고 똑같이 運營한다고 봤을 때, 한쪽에서 利益을 보면 다른쪽에서는 반드시 損害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養殖漁場의 共同管理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김의 病害發生이 해마다 問題되고 있는데, 病害發生은 事前에 協同組合이 豫察을 해서 情報를 제공해 줘야합니다. 그리고 일찌기 철거토록 독려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거의 無防備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個人的인 입장에서 아직 生産을 더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施設物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 全漁場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個人漁場 김발로 볼 때는 괜찮다 하더라도 全體漁場을 생각해서 同時 철거를 하고 同時施設하는 管理體制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 값은 生産時期에 따라 큰 差가 납니다. 今年에도 처음에 束當 4千~5千 원 하던 것이 지금은 1,500 원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漁民들은 이런 價格變動을 오랜 經驗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生産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 早期採苗와 도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生産은 많이 되나, 漁場 자체에서는 김이 要求하는 營養의 需給均衡이 깨져버립니다. 이 같은 漁場環境 惡化방지는 水協이나 漁村契가 맡아 이를 調節해서 共同으로 生産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하는 制度가 마련되어야 우리나라 김이 安定이 됩니다. 昨年부터 冷蔵발이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冷蔵발의 안정도 언제 入庫를 하고, 出庫를 하고, 撤去를 하고, 終網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漁場全體의 화합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이지 個別的으로는 成功할 수 없습니다. 浮流網도 全南 高興地方에서 相當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密殖정도 등에 協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아직 水協에서 그런 協議機構를 만들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漁場의 徹底한 管理를 위해 水協이 모름지기 生産과 販賣에 다같이 主人意識을 갖고 努力했다면 上場制에 대한 시비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생각할 때 現在의 水協의 機能이 좀더 強化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統計資料를 갖고 있지 못하여, 아마 아무도 정확한 우리 김 生産量 統計를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대강 보아 昨年度에 5千萬束이던 김이 今年에는 날씨가 좋아 7千萬束 나올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現存 김 施設量으로 보아, 技術적으로 安定이 된다면 8~9千萬束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漁民의 技術의 安定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冷蔵網의 보급이 덜 되어 있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組合이 漁場을 合理的으로 利用하는 것을 못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기복이 심합니다. 이 기복이 어느 정도 安定된다면 8千萬束이 나올 겁니다. 지금 日本이 1億2千萬 人口로, 6千萬束에서 김의 生産을 억제하려 하나 잘 안되고 每年 1億束 정도 나옵니다. 이와 비교할 때 우리도 이제는 좋은 김을 生産해야지 量的으로 많아가지고는 困難합니다. 이제는

아까 檢査制度에 대해서 어느분의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좋은 김을 만들고 나쁜 김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즉 바다에 김이 있어도 質이 낮으면 製造를 하지 않는 段階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水協이 관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거리가 있는 말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日帝時代에 漁業組合이 착취수단으로 組織되어 委販을 했다고들 하는데, 莞島에서 日帝時代에는 개가 돈을 물고 다녔는데 解放이 되고 組合의 機能이 마비되니까 개가 김을 물고 다녔읍니다. 또한 莞島, 高興에서는 엿장수가 新聞紙가 아니라 김으로 엿을 싸준 쓰라린 경험도 있었읍니다. 물론 이것은 日本에 輸出되던 김이 일시에 막히는데도 큰 원인이 있었읍니다만, 하여튼 流通問題에 아무 主人이 없어요. 지금 김의 流通過程을 갖고 시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면 곧 김값 가지고 社會問題化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모임에 차라리 그런 問題를 놓고 어떻게 解決해야 좋을지를 걱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까 柳議員님이나 劉教授님의 좋은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제는 資源保護令에 의한 強制上場이 아니고 진짜 協同組合 정신에 입각한 共同으로 만들고 共同으로 出荷하는 가령 水產物 流通規定이라든지 혹은 協同組合의 機能을 더욱 強化하는 規定을 만들어 施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간 그런 過程으로 갈 때까지 우선 現在의 制度는 깨뜨릴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沈能斗(瑞山郡 水協組合長): 우선 強制上場制란 文句가 어색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 管内에서는 強制라기 보다는 漁民이 水協委販場에 自律적으로 上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水協이 漁民들의 집에 가서 物件을 뺏아다가 上場하는 것도 아니고, 司直當局에 고발해서 上場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漁民 스스로 委販場에 갖고 오는 物件만을 販賣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主題發表에 나온 問題點 外에 添加해야 할 問題點으로는 任意上場의 경우 税金 포탈이 쉽고 따라서 商人, 소위 客主만이 利益을 獨占한다는

結論이 나옵니다. 客主가 委販事業을 獨占하는 경우 漁民은 組合으로 부터의 還元事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漁民을 위해서 심부름 해주고, 漁民을 도와주는 組合으로 살아 남기 어렵고, 그러면 共販事業이고 仲買人이고 없게 됩니다. 결국은 生産者가 각자 商人을 자기 집으로 부르거나 商人을 찾아 나서서 流通을 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 經濟的으로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으므로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겠고, 저희 管内 漁民들의 생각을 要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水協이 共販事業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私賣買를 하더라도 基準價가 나오고 이에 따라 私賣買를 하더라도 效果를 보는 것이지, 水協에서 共販事業을 하지 않으면 漁民은 일일이 大都市 市場으로 갖고 나갈 수도 없는 일이고, 商人의 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게 됩니다. 즉 水協이 販賣事業을 계속해 주어야겠다는 것이 저희 管内 漁民들의 主張입니다.

李濟煥(韓國産業經濟研究院 企劃室長): 아까 어느분 말씀에 主題發表內容의 綜合表를 볼 때에 卓上的인 研究機關과 協會만이 任意上場制를 主張하더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저의 身上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莞島로 김을 가지고 學校를 다녔고, 또 水協에도 奉職을 했었기 때문에 水協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의 父母를 대신해서 순수한 漁民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지 學術研究機關의 卓上空論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漁民의 權益을 보다 合理的이고 積極的으로 보장하는 名分있는 制度的 裝置가 절실하다는 것이지 漁民의 收奪을 외면한다거나 水協의 存立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나, 더욱 客主의 발호나 制度的인 후퇴를 원하는 底意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혀 둡니다.

오늘의 主題인 養殖水産物의 產地去來制度的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水

產資源保護令입니다. 水產資源保護令의 目的은 同令 第1條와 같이 不正水產物의 단속에 주안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養殖水產物의 不正漁業 團束을 水產資源保護令에 의해서 꼭 해야하는 것인가에 의문이 생깁니다. 김이나 굴 같은 養殖水產物의 不正漁業을 水產資源保護令에 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면, 水產資源保護令에 근거하여 水協이 開設해 놓은 場所에서 꼭 委販을 해야만 된다는 結論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오늘의 強制上場制나, 任意上場制나 하는 問題는 근본적으로는 水產資源保護令의 第19條나 第21條의 規定을 養殖水產物에 대해 계속 적용시킬 必要가 있는나의 問題부터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水產資源保護令 第21條第2項에서는 製造業者 등의 生産物에 대해서는 自家工場에서 처리하는데 強制上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씀드리면 強制上場을 절대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現在 農水產物의 流通에 대해서는 別個의 特別法으로 「農水產物의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이 있습니다. 적어도 養殖水產物의 去來에 대해서는 이 法에 의해서 논의되어야 마땅하지 水產資源保護令에 의해서 產地去來制度에 대한 시비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水協의 委販事業이 외면되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積極的인 次元에서 유도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任意上場으로 水協의 委販事業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 困難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水協에 委販했을 때의 單價와 各市場 都賣市場에 出荷했을 때의 單價를 비교해 보니 水協에 出荷한 것이 값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生産者의 입장에서 價格을 잘 받아주는 自己들의 團體를 외면하고 委託商을 찾아가 委販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어느 仲買人은 증전에는 돈을 벌었는데, 요즈음은 水協 仲買人을 하면서 生計維持가 안될 정도로 죽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最近 水協이 漁民들을 위해서 100% 만족시키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까지는 機能발휘를 한다는 反證이 아니겠습니까?

過去 62年 水協이 發足되어 養殖資金이나 收集資金의 支援이 없는 상태에서 客主가 발호할 당시와 상당한 組織基盤을 가지고 數百億원의 資金을 支援하는 오늘날의 水協은 양상이 다릅니다. 어느 時點에 가서는 制度轉換이 必要하다면, 지금 漁民들이 陳情書나 建議書나 대두되는 이 時點이 적절한 時期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의 社會는 一國의 大統領도 마케팅 세일즈를 하고 다니는 時代입니다. 우리나라에 原子力發電所나 高速電鐵을 팔고자 우리보다 先進國의 大統領이나 首相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또한 最近은 市場開放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水協은 水產資源保護令에 의한 强制上場의 틀속에 安住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漁民들의 지지 參與속에서 自生力을 길러가야 된다고 믿으면서, 어느 時點에 가서는 任意上場制를 해야 한다면 지금의 時點도 妥當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金宇盛(統營水專 教授) : 앞서 어느 組合長께서 김의 年間 全國 總委販 手數料가 200 億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水協이 과연 漁民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와 견주어 볼 때 手數料率이 높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Give and Take의 原則에 의해, 組合이 잘 해서 많은 事業을 하고 手數料를 많이 받을 만하면 手數料率을 높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手數料率을 낮춰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學生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만, 教授가 學生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能力이 있을 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지, 識見이나 學問的 基盤없이 다뤄가지고는 學生이 절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한 團體의 任職員이 團束을 할 때도 團束을 할 가치가 있을 때 團束이 可能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制度나 法規도 그런 의미에서 規範的인 妥當性이나 事實的인 必要性이 있을 때 그것이 可能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養殖水產物 關係를 말한다면, 어떤 養殖水產物 組合에서는 참 잘하고 있

입니다. 이들 組合들은 系統出荷를 잘 하면서, 한편으로는 自由販賣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漁民의 選擇에 따라 系統出荷도 좋고 自由販賣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속에는 水産物은 種類에 따라 特性이 달라, 어떤 水産物種目은 이같은 二元化가 可能할 수 있고, 어떤 水産物은 不可能한 것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法에 대한 次元을 낮춰 가지고 規則이나 告示 등으로 해서 種目에 따라 上場制를 구분해 주는 것이 運營의 妙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日本의 경우는 이러한 上場制 시비가 없었고, 手數料로 인한 시비도 없었습니다. 이로 보아서는 우리나라 制度上 뭔가 잘못된 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러한 問題는 行政機關도 있고 研究機關도 있으니까 여기서 충분한 研究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좋은 方向으로 바꿔 주는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任意上場制로 될 경우, 水協事業이 잘 안된다, 혹은 14個 組合이 넘어 갈런지도 모른다는 것은 杞憂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協同組合은 어디까지나 영세한 業者들의 福利나 社會的 地位向上을 위해서 設立된 것이므로 그런 水協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職員數를 조금 줄인다거나 알뜰한 運營을 통해 存置가 可能할 것으로 봅니다.

結論을 말씀드리면, 水協도 系統出荷도 또 自由販賣도 모두 있어야 되겠기에 이 자리에서 A다 B다 結論을 내리지 말고, 時間을 갖고 研究하면서 옳은 方向으로 유도해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몇 사람의 意見에 따라 制度改善을 決定하여 施行할 경우, 곧 試行錯誤를 일으켜 또다시 바꾸려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를 보는 자는 漁民뿐이므로 피해를 피하면서 서서히 制度改善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座長: 이 자리에서 議員님들을 가급적 뒤로 돌리어 여러 意見을 들으신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崔議員님께서 時間이 바쁘신 것 같아 먼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崔容安(國民黨 國會議員): 저는 全北 內陸地方인 任實 태생으로, 바

다와 인연이 없이 자랐고, 또 水産專門家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過去 地域 山林組合長으로 부터 出發해서, 林産物의 流通을 擔當하는 流通市場의 事業所長을 지냈고, 또 그 組織의 中央會 監査役을 맡았던 점에서, 대체로 우리나라 農漁民組織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견해의 結論을 먼저 말씀드리면, 改善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現在의 實情이 改善이라는 理想보다는 保護해 주어야 할 現實이기 때문에, 現實의 接近方法에 의해서 過去의 制度를 좀더 보완해서 農漁民이 잘 납득하고, 또한 그것이 市場經濟 機能에 맞추어 育成되었으면 하는 견해를 가지고 任意上場制를 反對하는 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農村의 農民이나 바닷가의 漁民들이 社會制度 또는 國家政策 전반에 걸쳐서 保護받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견 좀 격이 낮은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 앉아서 漁民의 입장, 水協의 입장, 仲買人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은 마치 노름방에 돈을 딴 사람은 모두 떠나 버리고, 새벽녘 파장에 돈 잃은 사람끼리 앉아서 利害關係를 다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문제는 農水産物 價格이 제대로 維持되는 社會, 農漁民이 스스로 자신이 生産한 物件을 좋은 交易條件下에서 팔 수 있는 社會 또 農漁民이 權益을 스스로 保護받을 수 있는 社會였다면, 開放的인 市場經濟의 機能에 맡겨버려도 이런 問題들은 전혀 거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다소 유감의 뜻을 표명하게 됩니다.

任意上場制를 아직 採擇해서는 안된다는 저의 主張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첫째, 主體的 農漁民의 입장에서 그들은 保護를 받아야 할 처지라는 점입니다. 農水産物은 일시에 많은 量이 集中的으로 出荷됩니다. 또한 生産量을 計劃生産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고 하나, 豊凶까지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資金이 소요되고, 産物이 流通되기 까지의 經路에서 備蓄이나 資金上 保護를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水協이라는 組織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것 입니다. 水協이 바로 漁民의 團體로서 委託販賣다, 強制上場이다 라기보다는, 漁民自身이 漁民 自身の 組織에 依存해서 파는 自己販賣手段이 곧 水協의 上場機能이고, 仲買人은 그것을 주

선해 주는 周旋人으로서, 또 그 業務를 擔當하는 機能人으로 存在하는 것입니다. 즉 産 價格을 保護해 주고 產物을 처리해 주는 機能이 一般市場 機能에 의해 완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 때문에 水協이란 組織을 우선 긍정하면서, 漁民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自己販賣方式에 의해 存在해야 되겠다는 주장입니다.

둘째로 公平의 原理에서도 任意上場制는 지양되어야겠습니다. 自然產 水產物과 養殖水產物이 다를 수 없습니다. 養殖水產物도 여러사람이 共有하는 漁場을 이용하고 있고, 資金面에서도 國家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農水產物은 全體의으로 現行 法令上 附加價值稅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國家로부터 혜택을 받고 漁場을 이용하며 같은 組合員으로서 水協을 公平하게 서로 육성시킬 책임이 있는 일부 養殖業者들이 자기 物件을 자기 販賣方式에 의한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들이 부담하던 다소나마의 手數料가 그 組合의 運營에 도움이 되었는데, 그 부담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이를 다른 水產業者가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組織育成上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로 流通構造가 완성안된 상태에서의 任意上場制는 아직 時機尙早가 아닌가 하는 견해입니다. 個人的으로 養殖도 하고, 輸出도 하고 또 기계를 놓고 乾燥도 하는 소위 專橫할 수 있는 脫漁民 階層 사람들이, 任意上場制를 主張하여 經濟的 이득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漁民은 지금의 市場經濟 사정상 個人的으로 販賣할 能力이 없습니다. 物件을 모아 市場을 찾거나 都市로 반출하는 사람은 生産者의 범주를 벗어나 이미 流通을 擔當하는 側으로 發展한 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면에서 만약 이들이 市場機能을 擔當하게 되면 零細漁民은 保護받을 수가 없다고 本人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의 세 가지 입장, 즉 漁民의 위치에서 보는 主觀的 立場, 社會原理的 立場, 그리고 市場이라는 客觀的 사정에서 볼 때, 任意上場制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하면서, 附言해서 3 가지 代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組織의 機能과 構造가 완성되어야 하겠습니다. 水協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手數料만 받지 않느냐는 피해의식이 있다거나, 이를 의심하는

構成員이 있다면, 水協運動은 잘된 運動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水協이 組織의 機能과 構造를 완성해서 漁民들이 스스로 낸 手數料가 자기들의 保護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는 평범하면서도 구체적인 原理가 바로 組織員들에게 接近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資金支援 및 上場制度가 改善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組合은 상당히 많은 手數料를 거둬 들이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全國 劃一的일 것이 아니라 手數料를 좀 낮추어 주고, 또한 水協中央會나 道支部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方法을 창출하여 좀더 構成員에게 서비스나 利益을 제공해 주도록 많은 研究와 施行이 있었으면 합니다.

세째, 價格維持政策이 아쉽습니다. 앞서 어느 教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곧 强制上場, 任意上場의 問題가 아니라 이 떨어진 값을, 이 엄청난 過剩生産을 어떻게 解決할 것이냐를 걱정할 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農水產物 전반에 걸쳐서 價格維持에 대한 國家 次元의 改善方案이 나와 적어도 農漁民이 生産하는 農水產物에 대한 제값받기 社會가 꼭 이루어 졌으면 하고, 이런 面의 研究가 있기를 바랍니다.

結論으로 말씀드리, 改善을 한답시고 망쳐 논 事例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校服自律化 問題가 그랬습니다. 休日 高速道路가 막히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通行料를 줄속하게 倍로 引上한 結果 車가 國道로 몰리고, 國도가 일시에 파손될 形편의 例가 그랬습니다. 改善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朱尤一(韓國農村經濟研究院 水產經濟室長): 過去 3~4年前 養殖漁民의 集團의 民怨이 있었다는 사실, 上場制에 관해 現行法上 「水產資源保護令」과 「農水產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의 두 法이 상충된다는 사실, 그리고 養殖漁家가 全漁家の 40%이고, 養殖生産量은 全沿岸海生産量의 36%로서 養殖漁業도 이제는 漁村經濟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동안 利害當事者間 內燃되어 오던 產地去來制度에 관한 쌍방의 주장은 이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時點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公聽會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養殖水產物 產地去來에 대한 제 個人的인 立場은 原則적으로 任意上場制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原則의 배경은 첫째, 우리나라가 資本經濟體制에서 모든 經濟活動이 善意的 競爭을 유도하는 마당에 養殖水產物 去來에서만 劃一性을 띠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 제가 객관적인 立場에서 볼 때, 個人資格의 漁民이라면 水協 말고 다른 販賣處도 있어 자기 利益에 맞게 고르고 싶은 것이 人之常情으로 漁民은 먼 훗날이야 어찌 되었건, 당장은 任意上場制를 選好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세째, 最近들어 歐美先進國에서 勞動組合의 會員數가 줄어 든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되는 것이 水協도 하나의 協同組合體라는 사실입니다. 漁民으로서 水協은 원하면 加入하고, 원치 않으면 加入안해도 되는 任意加入制입니다. 水協에 加入하지 않은 漁民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적어도 組合員이면 몰라도 만일 水協에 加入하지 않은 漁民, 즉 非組合員이 水協의 存立을 위해 자기의 生産物을 담보로 자기가 희생된다는 것은 論理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관점에서 原則적으로는 任意上場制로 가야합니다. 그러나 現實적으로 任意上場制로 됐을 경우, 이에 따른 否定的 效果가 너무나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制度改善에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 問題의 解決方案으로, 우선 水協에 相對되는 概念으로 客主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하튼 水協과 客主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場을 먼저 마련해 주어야겠습니다. 이 같은 制度的 裝置가 된 연후에 任意上場制로 가야지, 現在처럼 싸움의 對象이 안되는 條件에 넣고 한쪽을 두둔한다는 것은 마치 반탐級과 헤비級을 싸움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問題의 核心은 稅金問題입니다. 水協과의 去來에서는 稅金에 노출되고, 客主와의 去來에서는 稅金 포탈이 보장되다시피한 상황에서는 페어플레이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 問題의 解決方案은 水協에 上場해도 稅金에 노출되지 않는 裝置를 마련해 주는 것이 손쉬운 方法이나, 이것이 國民 皆稅의 原則에 어긋난다면 반대로 客主도 낱날이 稅金에 노출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여 應分の 稅金을 매기는 시스템이 성립된 연후에 任意上場制로 전환하는 方案을 찾자는 생

작업입니다. 또 한가지는 水協이 存在하므로 基準價가 생기고, 이 水準에 準해서, 예를들면 委販手數料에 해당하는 5%라도 더 줄 수 있는 客主가 있는데, 이 基準價를 꼭 水協만이 책임질 거냐하는 問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政府도 漁村福祉 側面에서 이 基準價에 準해서 備蓄事業을 확대한다든지 하여, 즉 政府도 財政投融資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의 일단을 지고 任意上場制로 넘어가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今年 김의 作況으로 보아 값은 高下間에 客主는 물론 水協도 能力超過로 더 以上 못사주는 過剩豐作이 豫想된다는 現實에 입각해 볼 때도 政府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制度的 裝置나 資金支援이 여의치 못할 경우, 몇個 養殖漁場이나 몇個 郡을 選定하여 이곳에서 任意上場 시범사업을 하여 改善方案을 찾는 後, 이를 확대 실시하거나 또 하나는 產地漁民이 製造業者와는 直去來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金座基(全南道 生産課長) : 앞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모든 問題點은 다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水產資源保護令 第19條, 第21條는 問題가 있는 法條文입니다. 이것이 생긴 배경은 저의 생각으로는, 일제시대에 적은 人員으로서 일시에 많은 物量을 손쉽게 한자리에서 수매하기 위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問題가 있는 法이 現在까지 改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問題입니다. 이로 인해 協同組合을 構成하는 組合員과 水協間의 不信은 물론, 이를 法대로 처리해야 하는 우리 行政職 公務員에게도 정말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비단 養殖品種인 김, 미역 뿐만아니라, 落島僻地에서는 自然產 고기에도 이런 問題가 생깁니다. 落島에서 잡은 고기를 이 法 때문에 먼 共販場까지 갖고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委販을 하지 않고 私賣買를 할 경우, 法的 制裁를 가해야 하는 저희 公務員의 애로는 큼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 法이 개선되어 任意上場制로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것을 改善한다면 사실상 問題點이 많으므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改善해 나가는 方向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結論적으로 養殖水産物의 任意上場制 전환은 바람직하나, 건전한 水協 育成發展과 水産資源保護, 不正漁業 防止, 또한 流通秩序 確立과 客主와 中間商人으로부터 漁民과 消費者를 保護하기 위해 앞으로 확고한 對策이 樹立되기 전까지는 現 制度를 繼續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任意上場制 실시를 위한 與件 造成과 보완대책, 그리고 示範品目과 示範地域을 정해서 示範事業을 해보고, 좋은 方向을 찾아 이를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성급한 任意上場制 實施는 당분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燦玉(慶南道 漁政課長) : 強制上場制와 任意上場制와의 輿論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長短點을 안고 現在 強制上場制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強制上場制와 任意上場制의 절충식制度로 보완해서 生産者와 消費者를 함께 保護하는 方向으로 發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金一玉(全北道 水産課長) : 정확한 統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養殖人口는 約 20 萬名으로 봐지고, 그 중에서 저희 道內의 養殖人口가 萬名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養殖을 하는 萬名중에서 企業養殖을 하는 숫자는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水産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 零細하지만, 養殖을 하는 사람은 더욱 零細한 위치에 있는 漁民들 입니다. 약한 零細漁民들은 자연히 强者의 횡포에 이용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약한 漁民을 政府에서 保護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任意上場制 보다는 強制上場制를 당분간 지속해 나가야 되겠다는 結論부터 내려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水協은 販賣에만 신경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生産의 問題와 더불어 資金面에서의 과감한 支援과 함께 오늘날의 社會가 情報社會이니까 水協에서는 流通에 관한 情報를 미리 수집하여 委販할 때 좀더 價格를 잘 받도록 漁民을 도와 漁民이 스스로 따라오도록 하는 水協體質 改善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制度란 現實에 맞지 않을 경우 당장 전면 고치기

보다는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앞으로는 任意上場制로 가되 一時가 아니라 어떤 品目이나 地域을 選擇해서 實施해 보고 그 結果에 따라 확대해 나가도록 하었으면 좋겠습니다.

余基石(忠南道 水產課長): 지금까지 여러 先生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結論은 이미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의 結論도 마찬가지로, 强制上場制를 점진적으로 改善해 나가되 앞으로 水產資源保護 畧의 問題點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鄭商錫(京畿道 水產課長): 제 나름대로 느끼고 整理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現行 制度는 經濟的, 社會的 環境변화에 따른 市場機能의 多樣化, 活成化 추세와 全國이 一日 生活圈인 오늘날의 실정으로 보아 現實 感覺에 맞지 않는 側面이 많기 때문에 時宜에 맞는 運營改善 方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現行 制度上的 長短點을 要約해 보면, 우선 長點으로 客主를 배제하여 生産者를 보호할 수 있고, 組合收入源의 확보를 통해 組合運營의 內實化에 기여하며, 私賣買 단속을 통한 不正漁業 防止로 水產資源 보호에 일익이 되며, 또한 系統出荷로 漁民의 協同意識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편 現行 制度의 短點으로는 企業養殖의 大量生産者나 契約生産者에게는 불필요한 時間과 經費의 부담을 안겨주며, 水協에 대한 獨占去來權 保障으로 漁民 受取價의 下落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改善案으로 養殖水產物은 任意上場制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 같은 전환의 長點으로는 生産者의 販賣市場 選擇의 自由化 保障으로 漁民의 不滿, 不平等을 해소시키며, 또한 水協과 商人間의 선의의 競爭으로 價格維持를 圖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制度 전환의 경우 겨우 정착화 단계에 있는 水協 委販制度가 무너져 流通秩序의 혼란이 예상되며, 仲買人의 客主化로 장차에는 惡性資金 침투로 인한 價格下落을 자초할 것이며, 또한 不正漁業이 성행할 우려도 있습니다.

結論으로 말씀드리 現行制度의 배경 등으로 볼 때 長點이 많으며, 短

點에 대해서는 보완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現行制度만 고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改善案을 지나치게 주장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制度를 改善하되 範圍, 規模, 地域特性 등을 감안하여 制限的이고 選擇的으로 施行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즉 品種, 經營體의 規模, 地域을 시범적으로 選定하여 시행한 후 成果에 따라 時差를 두고 擴大해 나가면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鄭泓來(水協中央會 常任理事):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水協中央會에서도 이 問題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檢討를 해 왔는바, 이 자리에서는 저희들의 意見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養殖水産物로는 김, 미역, 굴, 바지락 등 많은 種類가 있으며, 이들 養殖水産物의 비중이 자꾸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養殖水産物 중 김을 除外하고는 어느 種類도 強制上場制度에 대해서 問題가 된 것이 없습니다. 유독 김에 국한해서 任意上場制로 해야한다는 일부 여론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여타 水産物도 言及하겠읍니다만, 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生産漁家が 總 5萬家口이고, 總施設은 74萬棚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漁家口當 平均 15棚에 불과합니다. 우리 水協은 이들 零細漁民을 중심으로 한 協同組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漁民指導나 販賣問題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週에도 저는 擔當理事로서 水協 全南支部에서 24個 김組合을 모아 86年産 김의 流通對策을 協議했읍니다. 이번 김 生産量은 8千萬束으로 推計될 정도로 過剩生産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水協은 養殖漁民에게 棚當 13~15萬원의 養殖資金을 支援해 주어, 總 880億원 정도의 養殖資金이 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海苔網, 은죽발장, 綜合處理機 같은 養殖機資材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生産指導 側面에서도 密殖防止를 위한 제도나 漁場整理 問題, 生産製品의 規格化 問題까지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生産指導를 해서 漁民들이 生産한 김을 우리 共販場에 올려서 販賣토록 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生産은 漁民, 販賣는 水協」이란 標語를 내걸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水協은 共販場에 올려진 水産物에 대해 競賣를 붙여 最高落札 仲買人에게 주고, 販賣代錢에 대해서 漁民들 한테는 直拂하고, 仲買人 한테는 10日間 납부 유예기간을 주어 未收金으로 깔리는 立場에 있습니다. 지금 김에서만 仲買人들에 대한 未收金이 40 億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어튼 이처럼 水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任意上場制의 애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水協 組織員을 代表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水協은 委販의 경우 5%以內的 範圍에서 手數料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 融資未收金에 대해서는 販賣代錢의 15% 範圍 內에서 回收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지난 80年初에 新安組合에 問題가 있다고 해서 그때 客主 침투資金을 전부 조사해 보니 30 億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水協中央會가 全額 營漁資金으로 대체해 주고, 客主들은 水協共販場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木浦, 高興 地域이 좀 센 地域으로, 여기서 반발하면서 任意上場制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任意上場制는 問題가 있습니다. 지금 水協에서는 年中 仲買人 門戶를 개방해 놓고, 누구든지 百萬원 保證金만 내면 仲買人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全國적으로 김 仲買人만 550 名 정도 되지만, 이들 仲買人의 水準을 上中下로 볼 때, 上圈에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中圈以下의 仲買人들만 水協에 들어와서 販賣事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차도 水協共販場에서 크면 나가므로, 우리들 끼리는 水協共販場은 類似仲買人 養成所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하면, 水協共販場을 통해 去來된 모든 資料가 전부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自由業을 하시는 분들과의 차이로, 그 분들도 물론 성실신고를 하고 國民의 의무인 稅金을 다 물고 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水協으로서는 業務上 가장 큰 장애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任意上場制가 되면, 지금 있던 사람도 나가 버리고 따라서 共販機能이 쇠퇴해 질 것입니다.

지금 水協共販場을 除外하고는 어디에서도 競爭價格에 의해 김값이 決定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市場의 商人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價格에 삽니다. 만일 이들이 產地에 와서 水協共販場 옆에 자기들도 共販場을 하나 차리고, 競賣를 해서 김을 산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거부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任意上場制가 되면 어느 仲買人이든 水協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대로 장사를 하려 할 것이고, 이 경우 이들의 客主化를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가락동 都賣市場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品目告示를 하고, 場所制限을 하고, 類似業 단속을 하는 등 市場 活成化를 위해 서울시에서 노력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5 % 未滿의 手數料 징수에 대해서도 만일 組合員인 漁民들이 出資를 많이 해서 共販場도 유지하고, 委販資金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協同組織體가 育成되어 있다면 手數料를 받을 必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組合의 財政 형편은 그렇지 못합니다. 組合은 仲買人한테 10日間 無利子로 빌려준 販賣代錢에 대한 利子を 물어야 하고, 施設資金에 대한 借入金 利子도 갚아야 하며, 거의 100 % 信用貸出한 養殖資金의 일부 缺損處理도 해줘야 합니다.

養殖資金의 貸出金상환 問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漁民들이 내 組織, 내 團體라는 의식이, 우리 協同組合의 歷史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부 缺如된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組合에서 強制執行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자꾸 여러 問題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不正漁業 問題도 不正漁獲物을 왜 委販하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만, 사실 漁民이 法에 걸리면 組合은 行政機關에 가서 사정하고 빼달라고 하는 立場에서 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改善策으로 水協 仲買人들을 實力있는 사람들로 보강하고, 그동안 여러 過程에서 잘못된 것은 자체에서 소화하고 改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自由販賣制 自體에 대해 異議를 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現實을 감안해서, 現實에 초점을 맞추어 政策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座長：討論參席者들은 대체로 말씀이 다 되신 것 같고, 이제는 傍聽하신 분들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발언기회를 드리겠는데, 어느 분이든 오늘 얘기중 안나온 얘기가 있으면 要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全南 高興郡 漁民)：8千漁民이 피해를 보고 있는 高興 住民의 한 사람입니다. 高興은 김의 自由販賣나, 強制上場이니 하는 것을 굳이 들고 나올 必要가 없는 地方인데, 왜냐하면, 光州하고도 멀고, 서울하고도 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高興漁民들은 水協으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을 아침 일찍 팔려해도 9時가 다되어, 中部市場이나 中央市場에서의 販賣實績을 안 다음에야 高興에서는 販賣가 시작됩니다. 또한 지금부터 약 10年前에 만들어 놓은 仲賣人制度를 지금까지 헐지 않고 있습니다. 高興郡 水協 仲買人은 가락동市場 仲買人에게, 가락동市場 仲買人은 앞잡이에게 앞잡이는 다시 都賣를 합니다. 수금한 돈은 逆順으로 돌아 漁民에게 오는데, 이에 따라 어제 最低의 김 2,000원짜리가 中部市場에서 2,800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改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 업무를 하여야 할 水協職員이 40~50名 몰려다니면서 職務를 탈피하고 물건을 뺏어다 強制販賣하는 행위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民政黨 委員長, 副委員長, 平統委員長 할 것없이 全住民이 漁民 서명運動을 전개해서, 國會 農水產委 議員이신 이대순 議員과 유준상 議員께 오늘 이 公聽會에서 꼭 漁民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하고 전달도 했습니다.

지금 高興의 많은 漁民들이 水協을 등지고 光州, 서울 等地를 다니고 있습니다. 바쁜 그들이 돈이 많아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水協은 私賣買의 경우, 이진 不法團束物이라고 物件을 뺏아다가 창고에 쌓아 놓으니 漁民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얼마전 高興의 금산에서 商會를 하시는 분이 김한 車를 사서 선창가에 오니까, 水協職員이 搬出證만 주고, 手數料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組合에 가서 물건을 팔 때 仲買人들이 정해져 있어 적정價格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고장의 실정을 고발하기 위해 저는 이자리에 섰습니다. 門戶 개방이 되어 있으면 홍수 出荷되는 김

을 즉석에서 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任意上場이든 強制上場이든 그것이 問題가 아니라, 漁民이 어떻게 하면 대접을 받고, 높은 價格으로 全國적으로 빠른 時間에 流通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춰서 漁村 福祉社會가 건설됐으면 합니다.

柳俊相(新民黨 國會議員) : 지금 水協理事께서는 柵當 13 ~ 15 萬원씩 계산해서 總 880 億원의 養殖資金이 나갔다고 했는데, 現在 回收實績이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現在 水協은 100 % 信用貸出을 함으로써 漁民에게 實利를 주고 있다고 했는데, 本議員이 把握하고 있기로는 農水畜協을 막론하고 2 ~ 3 百萬원의 少額資金을 貸出할 때는 擔保보다도 保證人的 保證 자체가 훨씬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여러가지 問題點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麗水水專 高教授께서 지적하신 것 처럼 과연 水協이 제 機能을 발휘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生産도 水協, 販賣도 水協」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水協은 「生産은 漁民, 販賣는 水協」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일한단데, 과연 水協이 이같은 슬로건으로 漁民으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을 수 있으며, 現在까지 도출된 問題들을 解決할 수 있느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水協은 金檢査를 特等에서 等外品까지 하고 있다는데, 지금 漁民이 말씀한 바로는 高興 金산에서 客主가 檢査를 하지 않고 搬出證만 받아가는, 이것이 水協에서 하는 檢査制度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鄭泓來(水協中央會 常任理事) : 슬로건의 경우는, 사실은 「協同生産, 共同販賣」로 이같은 事項은 솔직히 말씀드리, 좋은 制度下에서 100% 수용 못하는 저희들의 立場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뜻으로 말씀드릴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柳俊相(新民黨 國會議員) : 제 입장이나, 研究機關, 大學教授, 組合長, 道 水產課長들의 얘기의 골격과 水協 鄭理事얘기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다시 말하면 鄭理事의 論旨는 現在 水協에 強制上場 즉 系統出荷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이고 이길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水協이 檢査, 資金支援 등을 통해 漁民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 問題는 公聽會에 參席하신 여러분들이 다같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漁民들이 겪고 있는 苦難, 權益의 침해 등은 날이 갈 수록 심해진다고 아우성입니다. 水協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朱室長께서 말씀하신 客主와 水協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도록 對策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 李室長께서 말씀하신 김으로 學校를 다니면서 느꼈던 상황에서 궁극적으로는 任意上場制로 가야된다는 얘기, 또한 漁民의 실증적 고발, 그리고 모든게 自律化, 開放化로 과거와 다르게 時代가 변천해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水協의 理事께서 좀더 폭넓게 받아 들여 좋은 方向으로 制度의 改善이 이루어지는 轉換點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와서 여러가지 지혜를 많이 배웠고, 座長님께서 발언 기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農村經濟研究院長님께서 잘 취합하면서, 앞으로 우리 漁民의 진정, 건의, 청원, 고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高楠表(麗水水專 教授) : 強制上場制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제가 日本에 가서 組合員들과 대화를 하고 피부로 느낀 바로는, 거기서는 전부가 組合을 통해서 系統出荷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도 組合이 生産技術指導를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읍니다만, 마침 水協의 鄭理事님도 나오셨으니 이런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水協이 技術指導는 水産振興院이나 漁村指導員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技術情報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3年 근무하고 他處로 발령받아 가는 公務員들이 한 地方의 耕作況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當該組合이 그러한 資料를 가지고 研究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組合 정도가 무슨 研究냐고 하겠지만, 분명 組合에서 자체 必要한 研究를 해야 됩니다. 漁民이 내는 手數料가 이런데 쓰여져서 漁民들한테 진짜 봉사를 한다면 여러 말이 안나올 것입니다.

系統出荷 問題에 있어서는 水協이 처음부터 나쁜 것은 못 만들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日本은 6千萬束에서 計劃生産 애기가 나왔는데, 4千萬 民族인 우리가 금년에 8千萬束 生産단계까지 와서 아직까지 이런 計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問題로서 이것이 또다른 問題들을 만들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劉忠烈(釜山水大 教授) : 우리는 歷史의 단절을 겪었다는데서 이런 불행을 안게 된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李朝 이래, 日帝 침략을 받지 않고 商業資本이 그대로 성장되어 나왔다면, 이런 問題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市場 안에서 水協이 競賣하고 싶으면 水協도 하고, 仲買人들도 法人體를 구성해서 競賣할 수 있는 길만 열려 있다면, 이런 問題는 하나도 말썽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水協이라는 生産者組織이 共販制度를 獨占의으로 말았다는 데서 이런 問題가 생겼다고 보아 집니다.

한편 저는 우리 水產政策에서 가장 基本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할때, 우리의 資源을 아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어느 道 水產課長님이 水產資源保護令 第19條, 第21條가 골치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들 條項을 없애 버리면 이것은 歷史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편한 選擇은 되겠지만 우리 後孫에게는 뭘 남겨 주게 될 것입니까. 오늘의 公聽會가 정말로 포인트가 맞을려면, 養殖水產物도 水產資源인 以上 生産面이나 販賣面에 있어서 漁業調整, 統制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이것이 漁民들의 입장에서 는 고달프고 슬픈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後孫에게 좋은 資源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選擇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民族의 장래를 위해서 資源管理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高德鳳(水產廳 漁政課長) : 여러 先生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主題에 대한 問題點은 전부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討議內容을 정확하게 報告書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座長：오늘 長時間에 걸쳐, 養殖水産物の 產地去來制度 改善에 관한 論議가 있었습니다. 멀리 南端으로부터 이렇게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오셔서 討議에 參席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柳俊相 議員께서 出身道の 의사를 대변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끝까지 參席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討議해 주신 內容은 그대로 정리해서 水産當局에 建議해 올릴 것입니다. 물론 建議 內容은 여러분들 의견의 主流를 따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인 말씀, 한 두분 소수의 의견도 빼 놓지는 않겠습니다. 이는 1千名이 옳다고 주장해도, 판단이 정확한 한분의 의견만 같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討議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綜 合 意 見

1. 現行系統販賣制에 대한 肯定的 意見

- 國家는 漁民個人的 經濟的 自由를 존중해야 하고 漁民의 自助組織인 水協도 육성시킬 의무가 있다. 이는 自由와 平等의 조화를 뜻하며, 이렇게 되어야 成熟된 社會가 이룩될 것이다.
- 現行 系統販賣制度下에서 水協은 漁民에게 流通情報 제공, 製品지도, 還元事業의 혜택을 주고 있다.
- 系統販賣制度가 있음으로써 競賣를 통한 基準價가 형성되고, 流通統計수집 및 價格調節기능이 유지되어 客主로부터의 漁民과 消費者가 보호를 받게 되며, 또한 不正漁業 방지를 통한 水產資源保護, 商人의 稅金포탈 방지 효과를 기할 수 있다.
- 養殖은 한 場所에 여러 漁民이 共同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므로, 生産極大化 및 製品의 質向上을 위하여 生産豫察 및 病害對策, 同時시설 및 철거에 따른 情報제공이 필요하다. 이같은 業務는 水協이 主人意識을 갖고, 生産과 販賣管理에 主導的 役割을 담당하여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 現行 系統販賣制度를 완화하여 任意上場制를 인정하게 되면 일부 水協仲買人은 商行爲에 구속력이 강한 水協을 떠나 稅金도 덜 낼 수 있는 客主로 될 것이고, 이 경우 競賣制는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零細漁民은 그들의 少量生産物을 大都市에 나가 팔 수는 있지만, 경제적 낭비가 심하게 되므로, 자연히 現地商人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같은 경우 漁民은 基準價도 없고, 流通情報도 어두워 商人의 농간에 말려들기 쉬우며, 종국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될

우려가 있다.

- 多數漁民은 아직 保護를 받아야 할 처지로, 이에 따른 水協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즉, 養殖, 加工, 販賣에 두루 관여할 수 있는 일부 企業的 脫漁民의 주장대로 上場制를 開放한다면 순수 零細漁民은 保護받을 수 없다.

- 따라서 현행 強制上場制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는 水協의 民主化 및 對漁民 봉사체제 확립, 手數料의 地域間 差 인정 및 引下, 仲買人の 財力과 資質向上, 委販施設 보강 및 委販場 早期開場, 金儲蓄事業 및 消費擴大策 강구 등의 방법으로 水協이 자체 해결토록 해야지, 이것이 불만스럽다고 制度자체를 바꾸면 水協機能 마비 및 客主의 득세를 통한 漁民의 피해는 더욱 크며, 그 치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2. 任意上場制로의 制度改善을 바라는 意見

- 水協은 產地流通의 獨占에 따른 서비스 결여로 養殖 水産物의 收集機能이 미약해졌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 水協초창기의 客主발호시절과 현재의 水協과는 差가 크므로, 任意上場制로 移行하더라도 水協의 自生力은 있다고 본다.
- 農安法에서는 물론 水産資源保護令에서도 養殖水産物을 무조건 強制上場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 기본적으로 현행 強制上場制는 產地 및 內陸地 重複上場에 따른 都賣價格 二重形成, 流通多段階, 流通時間지연, 高마진 초래, 商品性 하락의 부정적 효과가 크며, 交通과 情報의 經濟環境 변화에 따른 消費地 直出荷, 또는 大量 需要處와의 계약생산 공급같은 새로운 流通經路 개발을 저해하고 水産資源保護令(強制上場制)과 農安法(任意上場制)과의 적용법령이 상충되며, 手數料 강제징수의 편법으로 이용하여 漁民不滿이 고조되고 있고, 仲買人 零細로 인한 全量

收買 불능 및 價格조작의 위험이 있으며, 任意上場을 한 漁民을 依法 조치하여야 하는 行政機關의 애로가 크다.

- 따라서 水協과 客主의 善意的 경쟁을 유도하며, 漁民의 販賣選擇權 多邊化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任意上場制로 가야 하나 이에 따른 否定的 效果가 크므로, 制度改善에 어려움이 있는바, 우선 稅制改善, 魚價支持事業 확대, 委販場시설개선 등 水協과 客主가 善意的 競爭을 할 수 있게끔 補完裝置를 마련한 다음 制限的 品目과 地域에서의 任意上場制 示範事業실시를 통한 점진적 制度改善이 바람직하다. 또한 漁村契단위로 委託先行檢査制度를 實施하고 落島, 脆弱地區의 경우 漁村契에서 生産物을 共同으로 收集하여 水協에 委販하며 消費地 直出荷, 大量需要處와의 契約生産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公聽會에서 開陳된 其他建議事項

- 海苔 乾燥機 使用油類에 대한 免稅油 혜택
- 無免許 養殖 규제를 통한 養殖秩序 확립
- 海苔豐作 대비책으로서의 備蓄事業 및 消費擴大策 강구
- 客主의 惡性 流通資金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營漁資金 확대지원
- 水協의 民主化를 통한 봉사체제 확립
- 生産 豫察體制 확립을 통한 生産管理강화
- 流通情報, 委販施設 보강 및 委販場 早期開場
- 製品指導 강화
- 水協仲買人의 財力과 資質향상
- 對漁民 還元事業의 多邊化 및 擴大

附錄 1

開 會 辭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鎮

오늘國會農水產委員會 廉吉正, 金瑋鎬, 柳駿柏, 崔容安 議員님과 政府機關, 學界, 水產團體 및 現業에 종사하시는 漁民 여러분을 모시고 그동안 水產廳이나 水協이 중심이 되어 여러차례 검토하여 왔던 養殖水產物의 產地去來制度 改善方案에 대한 公聽會를 저희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이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年前에 設立된 저희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그동안 農水產에 관한 國內 및 國際세미나를 여러차례 개최하여 各界各層의 意見을 수렴하고 이를 農水產政策에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읍니다. 특히 水產部門에 대해서는 沿近海漁業과 內水面漁業을 主題로 한 政策協議會를 이미 가진바 있어 이번 公聽會가 세번째 水產分野의 모임이 되겠읍니다.

오늘 養殖業과 直接, 間接의 關係를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養殖水產物의 產地去來制度 改善方案에 대한 公聽會를 갖게 된 것은 制度改善에 앞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그 結果를 政策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養殖水產物의 產地去來制度 問題가 논란의 焦點이 된 것은 여러분께서 周知하시다시피 水產資源保護令 第19條와 第21條 條項에 의해서입니다. 이 條項에 따라 모든 漁獲物은 指定된 港口에 揚陸하고 指定된 場所에서 賣買去來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條項이 設定된 背景은 水產資源保護 및 不正漁業防止를 爲하여 揚陸港口와 販賣場所를 制限해야 할 必要가 있었으며 그외에 一時 多量으로 揚陸되는 漁獲物의 集荷 및 迅速한 分散處理로 圓滑한 流通을 할 必要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養殖業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같은 產地去來의 제한에도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으나, 80年代 이후 養殖業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流通의 劃一性 강요는 일부 養殖漁民의 불만을 유발하며, 또한 經濟環境 변화에 따른 새로운 流通經路 開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水產資源保護令의 水產物에 대한 沿岸委販場 強制上場制는 소위 農安法이라고 약칭되는 「農水產物 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에 규정된 農水產物의 自由販賣란 任意上場制와 상충된다는 사실도 깊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84年現在 養殖漁家가 全體 漁家口의 40%나 차지하며, 또한 養殖生産量은 전체 沿近海 生産量의 36%나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제는 養殖水產物의 產地去來制度 改善을 보류한 채 利害當事者 간의 엇갈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수는 없는 時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養殖漁民의 편의와 이익을 도모하면서 漁民의 自生團體인 水協도 發展할 수 있는 合理的인 產地去來制度가 확정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養殖業과 관련된 各界의 專門家들로서 여러분들의 기탄없고 건설적인 意見교환은 養殖水產物의 產地去來制度 政策方向 設定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本 公聽會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 많은 격려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1985年 12月 12日

附錄 2

參席者 名單

座 長	金 榮 鎮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國 會	廉 吉 正	(農水產委 民正黨 幹事議員)
	金 瑋 鎬	(農水產委 新民黨 議員)
	柳 晳 柏	(農水產委 新民黨 議員)
	崔 容 安	(農水產委 國民黨 幹事議員)
行政機關	金 是 文	(水產廳 漁政局長)
	高 德 鳳	(水產廳 漁政課長)
	鄭 商 錫	(京畿道 水產課長)
	余 基 石	(忠清南道 水產課長)
	金 一 玉	(全羅北道 水產課長)
	金 座 基	(全羅南道 生產課長)
	金 燦 玉	(慶尙南道 漁政課長)
學 界	劉 忠 烈	(釜山水產大學 教授)
	韓 圭 泳	(群山水產專門大學 教授)
	高 楠 表	(麗水水產專門大學 教授)
	金 宇 盛	(統營水產專門大學 教授)
研究機關	李 濟 煥	(韓國產業經濟研究院 企劃室長)
	朱 尤 一	(韓國農村經濟研究院 水產經濟室長)

水產團體	鄭 泓 來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常任理事)
	南 基 玉	(高興郡 水產業協同組合長)
	沈 能 斗	(瑞山郡 水產業協同組合長)
	曹 極 鉉	(珍島郡 水產業協同組合長)
	玉 景 杓	(釜垂下式養殖 水產業協同組合長)
漁民 및 仲買人	韓 基 洙	(京畿道 華城郡 西新面(釜養殖))
	奇 白 煥	(忠南 瑞山郡 南面(釜養殖))
	辛 錫 衡	(全北 扶安郡 扶安邑(김·패류養殖))
	金 永 來	(全南 高興郡 道德面(釜養殖))
	朴 栽 炯	(全南 珍島郡 古郡面(釜養殖))
	尹 憲	(全南 莞島郡 金日邑(미역養殖))
	金 鉉 富	(慶南 忠武市 明井洞(釜養殖))
	金 香 順	(全南 海南郡 北平面(仲買人))
	丁 喆 煥	(全南 木浦市 幸福洞(仲買人))

빈

면

養殖水産物の産地去來制度 改善方案

1985年 12月 日 發行

發行處：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録：1979年 5月 25日 第 5 - 10號

印刷處：株式會社 文 苑 社

☎ 739-3911代~ 4

無斷 複製나 轉讓을 嚴禁함